

# “시대정신 반영” “사회주의 개헌”... 첫 발도 못떼고 비난전만

## 여야 지루한 개헌 줄다리기

여야의 개헌 줄다리기가 공방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21일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2차 공개 부분에 대해 여당은 시대정신이 반영됐다고 반겼지만 야당은 내용, 발표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개헌안은 정치와 분권,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에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분명히 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한 것은 민주당의 입장과 함께한다”며 “경제민주화에서 ‘상생’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 사회적 경제 개념이 포함된 것,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정권의 방향이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준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일갈했다.

## 정부 개헌안 놓고 날선 공방

### 민주 “평화·정의당 함께 논의”

### 한국 “야4당 공동전선 구축”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개헌안 발의 전 청와대의 개헌 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청와대는 3부작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발표된 개헌안 내용은 화려했지만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며 날을 세웠다.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은 입서비스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오늘) 지방분권, 지방자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어제(20일) 거대 양당에 의해 자행된 지방의회 3.4인 선거구제 말살에 대해서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공허한 개헌선언이 아니라 실천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회 내 개헌안 합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이 이날 청와대 주도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4당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여야 5당이 모두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

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일단 민주당은 그동안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2+2+2’ 협의체 가동을 주장해왔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마치면 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개헌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취지에 공감하는 야4당이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다른 야당에서는 민주당을 협의체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라도 각 당의 공통 사안을 최대로 논의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5당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민주당을 빼고 개헌을 논의하지는 한국당의 제안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 정의를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치행정·입법권 강화하고 자치재정권 보장 ‘수도’ 조항 명문화로 행정수도 재추진 길 열려

###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내용

### 경제민주화 개념 한층 강화

청와대가 21일 두 번째로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실질적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개헌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1등, 지방은 2등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전했다.

개헌안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부터 ‘지방정부’로 개정하고 조직구성 운영에 대한 ‘자주권’을 포함해 실질적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 자치행정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헌법 조항으로 격상시켰다. 여기에 ‘제2국무회의’로 불려온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한 것은 정책 추진과 입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 ‘토지공개념’을 명시,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가 ‘공공성’을 내세워 사적 소유 개념이 강한 토지에 일정한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핵심으로, 기존 헌법(23조 3항과 122조)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석상’의 개념일 뿐, 시행된 정책의 상당수는 도입과 폐지를 되풀이해왔다.

1988~1989년 노태우 정부는 헌법 122조를 근거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조각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으나 모두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도입됐으나 논란 끝에 무력화되거나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정책들이 다시 추진될 경우 과거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민주화’의 개념도 한층 강화했다. 자유와 경쟁에 기초한 경제 질서를 보장하되,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권한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수도’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도 주목된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의 틀을 깨고 수도를 법률로 서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성문외치 없는 관습 헌법의 낡은 틀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수도 이전’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14년 만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규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불안·초조한 현대인 ‘정말 잘 있을까’



김은영의 '그림 생각'

### (218) 안부

“오래/보고 싶었다//오래/만나지 못했다//잘 있노라니/그것만 고맙다”(나태주 작 ‘안부’)

자고나면 아침에 접하는 뉴스가 ‘경천동지’할 사건·사고이고 보니 가까운 사람 혹은 오래 소식 나누지 못했던 지인들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좋은 삶을 향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일지도 모르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최석운 작가(1960~ )의 ‘나는 잘 있다’(2010년 작)는 최근 영화보다 더 스펙터클하고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을 헤쳐 나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너나없이 바쁘게 여딘가를 향하는 도시민들이 각기 가족이나 지인들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안부를 전하지만 작품의 제목처럼 “나는 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한 인물들의 상황은 한쪽으로 몰려있는 눈동자를 통해 과장해서 묘사되고 있는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있다”고 말해야 하는 순간은 어떤 상황일까?

최석운 작가는 “소통의 매개체라 할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를 어디서든 수시로 찾는 현대인들은 어쩌면 소통의 부재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세태를 건드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휴대폰에 매여 이제 더 이상 사적 공간과 사생활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 지도 모를 현대사회를 무심하게 관찰한듯하면서도 사소하게 지나치지 않고 깨알처럼 포착하고 있는 작가의 시선이 공감을 준다. 작품 하단에 이 모든 상황을 조소하는 듯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개 한 마리의 설정은 관람자



최석운 작 '나는 잘 있다'

들에게 이 장면이 심각한 상황을 느끼게 하려는 것 같다.

부산 출신으로 양평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유머스럽고 능청스런 화법으로 보여주고 있어 ‘현대의 풍속화’라 불리기도 한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